

# 주안에게

##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1  
Jan. 2016  
Vol.4 No.1

- 기도의 자리 지키기
- 새해 기도제목
- LA예배처소 첫 예배
- 교육부 / 간증 / 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Valley 818.363.5887 Fullerton 657.217.5558 | 문서국 e-mail: iccn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플러튼성전 마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 은혜와 감격 속에 새해 첫 예배

그동안 다루니, 세리토스를 거쳐, 아름답고 아름다운 자체성전을 플러튼 지역에 마련 지난 1월 3일(주일) 2016년도 첫 예배를 은혜가운데 드리게 되었다.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린 600여 성도들은 그동안 힘들게 지내왔던 세리토스에서의 생활을 추억으로 돌리고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마련했다는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 시간 내내 뜨거운 감사와 은혜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마하나임성가대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렸고, 최혁 담임목사의 귀한 2016년도 첫 말씀 "역사하는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이곳이 플러튼 지역의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기도했다.

성가대총무 윤영섭 집사는 그동안 피아노를 놓지 못해 찬양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름다운 성전에서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 찬양을 드릴 때에 성가대원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고백의 시간이었다고 감사했다. <5면에 계속>



## 2016년 교회 표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 ■ 작심삼일 새벽기도

작심삼일 새벽예배가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플러튼과 밸리채플, LA예배처소에서 열렸다. 최혁 담임목사는 말씀을 통해 2016년도에는 더욱 새벽기도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3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새벽예배에 나와 기도할 것을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 이라고 강조하시고 또 “수단과 목적” 이라는 설교말씀을 통해 자기의 문제를 풀기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통해 나를 바꿔야 한다고 작심삼일 마지막 설교를 마쳤다.

우리 주안예교회가 지난 2015년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올 한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때보다도 더욱 기도에 힘쓰는 한해가 되기를 부탁했다.

정말로 올 한해 작심삼일을 넘어 작심 3년 아니 작심 30년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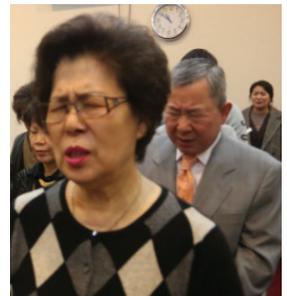


### ■ 신년특별새벽예배

2016년도 신년특별새벽예배가 지난 12/28(월)부터 1/2(토) 까지 일주일간 2개 채플과 LA예배처소에서 열렸다.

“역사하는 기도(1)” 라는 제목으로 첫날부터 뜨거운 열기 속에 신년특새가 시작되었는데, 2016년에 특별히 최혁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지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는 것으로 전교인이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간구하길 원하신 것이었다. 예년과 같이 신년특새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였는데 특별히 새로 시작한 LA예배처소에는 8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을 깨웠고 또 밸리성전과 새성전 플러튼채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새해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출발을 다짐했다.

모든 예배와 사역, 기도모임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길 간구하며 새로 예배를 시작한 플러튼 새 채플과 LA 예배처소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



길 위해 기도했다.

목사님의 말씀사역(방송, 미디어)이 미주 전역과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까지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였다.

특별히 목사님들께서는 새해 첫날(1/1)과

둘째날(1/2) 플러튼채플과 밸리채플, 그리고 LA예배처소에서 우리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축복기도 해주심으로 올 신년특새를 마쳤다.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기대되어지고 기다려지는 올 한 해가 될 것이다. | 오병순 기자 |

■ 제직/리더 세미나

지난 1월 28일(목요일)부터 1월 30일(토요일)까지 제직, 리더 및 향존직을 위한 청지기 세미나가 있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벧전 4:11)" 말씀을 붙잡고 이뤄졌다.

목요일 플라튼채플,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벨리채플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각 채플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세우려는 열심을 지닌 2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나게 했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김정도 목사는 필라델피

아 동지교회 담임목사이자 FAITH신학교 첫 한인 이사장이기도 하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은 교회의 리더들이다. 하나의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그 불빛이 다른 촛를 찾아 두개 세계의 촛불을 만들어 마침내 어둠을 거둬내게 될 것이다. 하루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상을 앞에 두고 가족들과 정겨운 시간을 보내며 피곤한 몸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대신 나들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자리를 빛내준 성도들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욱 탄탄해지고 굳건해져서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길 기대해 본다. | 채은영 기자 |

■ 의료국 건강검진



작년에 이어 초음파 검사가 지난 토요일과 주일(1/23, 24) 벨리채플에서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층 의료국(국장 이복희 권사)에서 있었다(플라튼채플 2/13 예정).

초음파 검사뿐만 아니라 골밀도, 심전도, 한방

의료, 그리고 체질검사까지 이루어졌다.

세계의료선교회가 주관하였고 이번 의료국에서 이루어진 각종 검사로 들어온 수익금은 내팔 의료 선교를 위해 쓰여졌다.

우선 대상으로 무보험자와 저소득자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평소 바빠서 병원에 가지 못한 신분,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방문하였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의외로 이 지역 주위에 사는 많은 한인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검사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특히 율해인 유능한 Radiologist(방사선과 전문의)가 함께하여 초음파 검사 후에 나온 사진을 가지고 같이 일

대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많은 분들이 평소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몸안의 혹이나 지방간, 갑상선, 신장, 담낭, 전립선, 그리고 유방, 자궁검사 등을 하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전문의를 찾아가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하기도 했다.

1월 31일 주일에는(플라튼채플 2/14 예정) 또 혈액검사가 있게 된다(오전 8:00-11:30).

초음파 검사 후의 연장으로 혈당, 갑상선 기능, 콜레스테롤, 전립선, 간염 바이러스 검사 등 피검사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박희정 기자 |

초음파, 심전도부터 체질검사까지 몸상태 확인

■ 교육부 학부모 모임(벨리채플)

2016년 새해 들어 첫 학부모 교사 모임을 지난 16일, ICKIDZ Room에서 가졌다.

공태용 교육부 국장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모임은 유아에서부터 유스를 가진 부모님들과 스텝, 선생님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이번에 새로이 헌신하시는 새 얼굴들과 함께 모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달에 있을 행사와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교사 학부모 모임은 매월 둘째 주(11:30-12:30)에 갖는다. 자라나는 다음세대 아이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진정한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지기 위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협력과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2월엔 발렌타인 뱅킷이 있을 예정이다. 데코레이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간과 음식과

간식을 위한 도네이션을 원하는 분들에게 언제든지 교육부 문은 항상 열려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의 교육부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매주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주일학교가 단지 부모들에게 어린 예배를 위해 아이를 맡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보단 진정으로 내 아이가 오늘 주일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가는지 부모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주면 하는게 바람이다.

교회안 교육부가 있는 한 그리고 또랑또랑한 눈망울을 반짝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는 한... 다음 세대 믿음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 교사 모임은 매달 정기적으로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달에 한번은 점심을 가지고 IC KIDZ Room에서 같이 모여 학부모 교사 스텝분들과 얼굴도 익히고 좀더 친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박희정 기자 |

■ 첫 주일에배

## 다운타운 한모퉁에서 은혜와 감동의 첫 주일에배



1월 둘째주인 지난 10일 9:30am에 LA예배 처소에서 역사적인 첫번째 주일에배가 드러 졌다. 1부와 2부 예배 합해 300여명의 성도 들이 함께 모여 드린 기쁨과 눈물이 함께한 은혜의 예배였다.

널찍 널찍하고 여러 시설들이 잘 갖춰진 벨 리체플과 아기자기하고 잘 손질된 플러튼채 플에 눈에 익숙해진 대부분의 우리들에겐 작

은 규모의 예배 처소 건물이지만 이때를 위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실과 6개의 크 고 작은 교육부 교실이 갖춰진 가운데 24명 의 학생들이 함께 드린 예배라 더욱 감동적 이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 되뇌어지고 은혜를 느끼는 현실이다.

LA지역에 많은 한인 동포들 중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고 새로 출발하는 LA예배처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그 동안 LA채플을 위해 많은 기도와 성원을 보내주 신 플러튼채플과 벨리체플의 성도님들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 나형철 기자 |



〈플러튼채플 이전 감사예배 1면서 계속〉  
또 7교구 교구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영진 안 수집사는 셋방살이를 벗어난 기쁨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좋고 감사하다며 활짝 웃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맛보는 꿀맛과도 같 은 귀한 한끼의 점심식사는 그동안 점심식사 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구역장과 성도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기에 충분했다.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곳 주안예교회 플러튼채플에서 예 배를 드리게 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과 같이 변함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들로 충만하 기를 기도한다.

### ■ 수요코람데오예배

## 하나님 앞... 뜨거운 찬양과 믿음의 고백

1월 13일 저녁 7시 30 분, L.A. 다운타 운 Olympic 과 Santa Fe 에 위치한 작 은 건물에서 우렁찬 찬양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도 가던 길을 주춤하며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천사의 음성들은 바로 주안예교회 L.A. 예배처소에서 드러 지는 수요일예배(코람데오 예배)의 첫 걸 음을 알리는 활기찬 찬양팀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수요일예배라는 명칭보다는 모든 찬양과 예배의 순서를 "코람데오"라 칭하는 청년부가 준비하여서 드러지는 "코람데오 예배"로 불려지면서 조금은 색다르면서 의미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Coram Deo"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고 합니다. 청년들이 젊은날의 넘쳐나는 에너지를 하나님께, 그것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드린다는 믿음의 각오와 열정으로 세워진 작 은 group 이지만 힘들고 험한 지역에서 더욱 빛을 받으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



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안예교회는 또 다른 광야와 같은 지역에서 영혼사랑의 가슴앓이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쩌한 가슴앓이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아름다운 결실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오희경 기자 |

하루 하루 감사... 삶이 예배처럼... 아버지의 뜻... 성령충만



**김항희 장로, 김헬렌 권사** 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기적을 바라고 요구하는 욕심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가꾸어 가는데에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도록... 오늘이 나의 최선과 최상의 날이라 하면서 좀더 부지런히 영과 육의 생활을 조율하고자 하며 작은 일에 감동 감사를 하면서 함께 사는 이들을 먼저 사랑하는 기쁨으로... 그리고 나의 삶이 고��속에서도 감사로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김진석 장로, 김선자 권사** 우리 1교구가 주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되어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자녀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무슨일이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진복, 정유정 집사** 새해에는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자녀의 모습이 저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최우리 자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한 해가 되어 삶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경배 집사** 주안예교회의 성도님들, 헌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2016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순례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현보 집사, 이준 권사** 2016년도에는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황금석, 황화진 집사** 1. 새해에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듣게 하시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2. 교회안에서 거치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는 부모와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3. 교회마다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강승우 형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안예교회도 같은 마음이 되는 한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우석, 이경빈 집사**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살게 하소서.



**황동성, 황은숙 집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주안에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주님께 영광돌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알렉스함 집사** 2016년도에는 우리 주안예교회 EM 과 한국어반 부모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힘이 되고자 합니다.

2016 Prayers



**박선우, 박성원 집사** 새해에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영적으로 힘있는 찬양을 하길 기도합니다.



**이에스터 권사**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케빈, 김하연 집사** 새해에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인도하는 길에 오로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집중하는 2016년 한해가 되게 읍소서.



**Ethan Yim** Bless my family and our church. Bless the whole world. I pray for my sickness. I pray that I get to know more about God.



**임훈 선교사, 임화연 권사** 주안예교회 EM사역, 통역, 홍보기도, 성가대의 직무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고 잘 감당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안예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하나되어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박경수, 박경숙 집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권, 인권, 물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안에” 2016년 2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김신실, 라형철, 박창신, 박희정, 안경숙, 안덕문, 오병순, 오희경, 이광영, 이하나,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안섭,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회복과 부흥...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끈... 주님과 동행

# Year Lists



**권상복 집사, 권현숙 권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영혼, 한 심령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윤미라 집사** 1. 주안예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들에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자신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2. 주님 안에서 관계의 너그러운 무소유의 여유로움 영혼의 풍요로움을 삶 가운데서 누리며 나누며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성훈, 이지혜 집사** 2016년도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은... 먼저 저희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주님을 영접 할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더욱 건강하고, 기도에 더 힘쓰는 저희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장혜덕 권사** 1. 종교인이 아닌 참 신앙인으로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과 좋은 생각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2.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며 열심히 기도하므로 생활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3. 2016년도에는 맡겨주신 공동체 6교구와 성가대가 하나되어 서로 배려하는 맘으로 평안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성수, 김은경 집사** 1. 믿음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2. 시어머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3. 가족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위해서 4.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사역에 힘쓸수 있길 바랍니다.



**김숙현 자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이현욱 목사** 2016년도 한해 동안 주안예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뤄지게 하소서. 제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옥명희 집사**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IS와 북한문제와 총기문제가 해결되어 뒤틀러가는 사회를 바로 잡아 주시고 \*포트랜치 개스사가 마무리되어서 맑은 바람이 다시 불게 도와주시고 \*더욱 바라옵기는 목사님께서 더욱 건강하게 하옵소서.



**조경일 간사, 이지혜 집사**  
올 한해 우리 두사람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소원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원근, 이명주 집사** 2015년은 감사하게도 저와 가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층 자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은 주안예교회의 방향대로 우리 가족 또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도 우리 가족을 보고 기뻐 복 주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인범 장로, 이계순 권사**  
2016년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가정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에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소서.



**서미숙B 집사** 하나님 뜻 안에서 보는 안목과 영안 주시고,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 따르는 거듭난 성도되게 하소서.



**최운선 집사** 제니퍼킴, 양승안, 조은김, 서미숙, 민영란, 신지은, 오애니 집사님들과 함께 플러튼 6교구 2구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소서.



**김경일 장로, 김옥희 집사**  
2016년 한해는 우리 주안예교회에 즐겁고 행복한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어렵게 하는 어떤 일도 없게 하고,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을 막고 힘들게 하는 어떤 방해에도 담대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주안예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김영기 장로, 김영희B 권사**  
자녀들이 올 한해는 더욱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주일성수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상 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도와주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혜연 자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자랑스럽다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David Oh** "Dear God, Please, bless our church so that we all can live by Your word. Help my family do their best in all their work and stay healthy. Bless me with wisdom and understanding."



**최진선 집사**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빛을 비추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고 내년에는 더욱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장정보 권사** 더욱 감사로 올려드리 는 삶이 되게 하소서.



**김종호, 전기숙 집사**  
2016 새해엔 주안예교회의 새가족이 아닌 "가족"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가를 기도하며 깨달아 그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 중고등부 수련회



##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내 모습, 나의 시선

"Anyone who believes in me may come and drink! for the scriptures declare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his heart."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요한복음 7:38)

지난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동안 "Living Water: Satisfied"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최근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 열린문 교회 EM사역자인 데이빗목사를 초빙강사로 모시고 이뤄졌다. 매번 약속이나 한 것처럼 처음에 많지 않은 인원이 참석할 듯해 걱정어린 걱정을 하게 하더니 마지막까지 참가신청이 들어와 스태프까지 120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하였다. 날씨는 참 겨울스러웠고 둘째날은 평평 눈도 내렸다. 장갑이 없어도 아이들은 눈싸움에 작은 눈사람도 만들었다. 눈이 살짝 녹는가 싶더니 해가 떨어지자 길이 얼어붙어 아이들의 간식을 실어 나르던 엄마 아빠의 차가 수련장 입구에서 더 올라오질 못하자 어느새 아빠의 어깨보다 넓은 어깨의 11~12학년 남학생들이 아무렇지 않게 김치찌개, 카레에 물 3박스까지 아무렇지 않게 지어 날랐다. 어쩌나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던 엄마들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수련회장은 따뜻했고 편안했으며 음식은 준비한 손길의 사랑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 아이들은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었다.

첫번째 시간부터 말씀은 가감없이 강하게 아이들 마음의 문을 열었다. 죄는 아주 천천히 다가와 내가 익숙해지도록 곁을 지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 몸과 마음에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나와 하나가 되어 버린다. 어떤 열매를 얻고 싶은가. 내 생각의 뿌리를 말씀에 두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해되고 이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어 믿음이 시작이 될 것이다. No word, No

God, Know word, Know God.

누구의 상처가 깊은지 비교할 필요도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다. 상처를 입으면 고통스럽기는 매 한가지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상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견어내고자 함이다. 우리 인생에 통증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통증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순전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투자되길 원하신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받았던 육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고통은 육을 망가뜨리기 보다 육의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과 사랑을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었다. Remember! God is Good~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상대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면 과연 결혼하겠다는 그 결심, 생각에 누가 동의할 것이며 누가 그 사랑의 진정성을 믿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간절히 원하신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에 힘쓰자. 기도를 통해 평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하지 않는듯하여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도록 길을 여는 것이 기도이다(야고보서 5장 13절~18절).

인생 40을 넘기는 기자의 고통이나 10살짜리 여학생의 고통이나 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긴 매한가지.. 이 고통이 주는 공통점



하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을 이겨내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투영되길 원하고 바란다는 점.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도 울었고 엄마도 같이 울었다.

마지막 시간에 설교자의 학생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써 두터운 신앙심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지침. 1)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를 하라(에베소서 5:4) 2) 이전엔 죄인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걸맞는 독실한 예의범절을 행하자. 3)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자. 4) 만고불변의 진리.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까지나.. 영원히 God is Good. 5) 순결함을 지키자. 사춘기를 지나면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욕망들.. 잘못된 일을 할 때 느끼는 쾌감이나 만족감은 항상 채워질 듯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반복하게 만들고 결국 중독되게 만든다. 자신을 시험하지 말고 시작조차하지 말자.

우리의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이다. 지금 이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죄에서 자유하며 순결해졌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나다. 내가 지금 죄에서부터 등을 돌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말씀은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도 용기가 되었지만 신앙생활에 굳은 살이 박힌 기자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동시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아이들의 겨울 수련회는 이렇게 끝났으나 벌써 아이들의 마음이 흐트러질까, 이 각오로 마음이 따뜻할 때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다방면에서 오늘 보다 내일, 1월보다 3월, 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커졌길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ICY 사역팀이 든든하고 대견할 뿐이다. | 채은영 기자 |

■ 중고등부 수련회 간증

### Pursuing God

"Anyone who believes in me may come and drink! For the Scriptures declare,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his heart'" (John 7:38 NLT).

It's weird to know that our relationship with Christ is as simple as that if we believe, we may receive. This past winter retreat was a time that allowed me and my fellow brothers and sisters to escape from whatever we had going on in our lives and really focus on coming to receive. But through this retreat, I learned that receiving really only comes to those who genuinely believe.

As our guest speaker Pastor Dave Kim, included in one of his sermons: You reap what you sow. How much you reap depends on how much effort you put into your crop. In other words, how much blessing and insight you receive depends on how actively and passionately you pursue Him. And "pursuing God" could imply even the seemingly smallest things. If I had been unsatisfied about the way a game was prepared, I could show my respect to God by being grateful of the leaders that took the time and effort to plan the games in the first place. If I had been missing my mom's homecooked food, I could show my gratitude to God by enjoying the delicious meals cooked by the welcoming staff. As a change in attitude allows a happier life, a change of heart allows greater blessings. And I can firmly say I have been blessed mostly by all the dedicated leaders, pastors, adults, and staff that helped make the retreat happen.

As a senior heading off to college soon, I know I will look back at ICY Winter Retreat 2015 as a precious time that I spent with my brothers and sisters, united in our pursuit of God and his living water.



Hanna Kim (12th)

### God's Image

My experience at the ICY retreat was unforgettable. Not only was it my first retreat in a couple years but it was the best. Retreat did many amazing things for me I learned more and I experienced the love of God. I also saw people become vulnerable and cry out to the Lord.

Although everything was great I realized how much I took advantage of the Christian life and how easy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God helped me in that way through the pastors and the teachers he showed me it's not easy and it never will be. He also taught me that everything I care so much about is so temporary and He is eternal. I grew spiritually in a way I couldn't have done alone. So I thank God for showing me the way and hopefully after my experiences I can be as much of God's image as I can.

Ryan Kim (10th)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키 아이디어

### 퀴시 (서양식 달걀찜) Quiche

프랑스 요리라고 알려진 퀴시는 아침 점심 저녁 어떤 때로도 맛과 영양면에서 훌륭한 일품 요리이다. 박창신 기자



**재료** 1) 크러스트 재료: 밀가루 1&1/2 cup, 소금 1/2 작은 술, 올리브 오일 1/4컵, 얼음 물 5 큰 술  
2) 속 재료: 우유 1컵, 달걀 4개, 파마산 치즈 가루 1/4컵( grated parmesan cheese), 브로콜리 1컵 (잘게 썬), 구운 베이컨 8조각(잘게 부서뜨린), 채썬 채다르 치즈 3/4컵(8 ounces shredded Cheddar cheese), 소금 후추가루 각각 1/4 작은 술

**조리법** 1) 밀가루와 소금을 섞어 체에 내린다. 2) 올리브 오일과 물을 포

크로 잘 저어 끈득하게 되면 위의 1번과 섞어 반죽한다(Pie dough). 3) 9인치의 둥그런 파이 크러스트 판에 반죽을 눌러 크러스트의 모양을 만든다. 4) 오븐을 화씨 400도로 예열한다. 5) 우유, 달걀, 소금, 후추가루를 섞어 놓는다. 6) 3의 크러스트에 베이컨, 치즈, 브로콜리를 넣고 7) 4의 우유와 달걀 섞음을 6에 부어 8) 400 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40~50분동안(칼로 중앙을 잘라 묻지 않고 나올 때까지) 굽는다. 9) 오븐에서 꺼내어 5분 정도 기다렸다가 6~8조각으로 잘라 상에 올린다.

성경퍼즐  
정답

< 12월호 >

	영	광	평	화	
소	생	나	목	수	
에	돔	안	드	레	염
덴	계	수	아	이	금
소	명	양	단	정	
도	고	디	모	데	사
마	성	도	라	마	사
미	문	사	가	족	비
하	갈	스	데	반	장
					로

12월호 당첨자:  
박경원, 박미자,  
이지혜, 정혜옥,  
조혜리, 조혜숙,  
황영옥



원 장

Helen Kim

Bus. Hours:  
Mon. ~ Sat.  
9:00 AM ~ 7:00PM  
전화예약 바랍니다.

김 선 영 미 용 실

▶ 6772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Tel (714)228-9001  
Cell (562)315-3090

■ 교사의 글

## Awesome God II

Last year about this time, I had the great privilege of writing for our ICCC Newsletter regarding the experience, thoughts and blessings that I shared as a teacher with the IC Kidz.

Fast forward one year, I am heading into IC Youth year end winter retreat, partaking as the new secretary for the year 2016. I have no idea what I am to do, but let's head up to the retreat center anyway with our lively and energetic youths and leaders of IC youth and see what is up. Being in the mix and jumping into the deep end always seems to be the best way to get the appetite wet and ready myself for whatever the Awesome God has in the store for us.

Since I have been sharing in the IC youth for about 8 hours tops at that time, including the drive up to the retreat center, I had no idea who was who in the group. When I got there, I saw young adults who seem to be leaders setting up and prepping for the event. I decided to introduce myself to few of them to break the ice. They were having fun, sharing and ready to receive. Kids were piling out of the tour bus. Excited to be with their peers,

or just happy to be away from their parents and the rest of the world. After dinner in the mess hall, the praise band started pumping and the leap towards God started in many different shapes and forms with the guest speaking pastors. New hopes, healing of old wounds, unknown future of good and bad. It was just good to be away from the world and be in the embracing arms of the big guy even for a little while. It seems as though he missed every one of those kids very dearly.

It is good to be new and ignorant, because everything seems new and marveling. Few things stood out in my mind during the process of the evening. Although this was a unity of people from two chapels, soon to be three, the process and the oneness seemed seamless. One God, one word, one mission, and one blessing for the IC Youth came so easy to them. Why not? Things are so much easier when it is less tainted and back to basics. The transition from IC Kidz to IC Youth and ultimately developing into leaders of the EM ministry seemed essential. They are able to partake in the leadership, ultimately transitioning and maturing into church leaders that

will head, lead and be the front face of the English Ministry. How awesome is that, awesome God? I just hope that they can bridge the gap between the 1st and 2nd Gen, Korean and English, Parents and Children, and main stream vs. the Korean way. The one prayer reaching out to him to take us as a whole.

I sincerely hope that he touched everyone there at the retreat. I know he did because I can still hear him as I try and bang out few words as I am writing this now. Touch our hearts and reach our spirits and heal our souls within the isolation from the world within your love. Although I only spent couple of short evenings at the retreat, it looked good and pleasing. Unity of the three chapels, KM and EM, Parents and Kids, Old Gen and the New Gen was the confirmation and the affirmation that our Awesome God works and will work in mysterious ways.

I said, can I get an Amen. He has got our back. Seriously, can I get an Amen.



Alex Hahm

**UCOME AUTO SALES**  
 새 차 • 중고 차 • 매 매 • 리 스 • 좋은 보험 소개  
 자동차를 싸게 사실 수 있는  
**One Stop Shopping**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박선우 / Paul Park  
 Cell: (213) 880-1267  
 p1267w@hanmail.net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3700 Wilshire Blvd. #265 LA CA  
 Cell : 818.648.1224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크리스찬 신서센터 기독교 종합백화점  
 성화, 성구책가,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 목사개운, Tape, CD  
 대표 강 병 찬  
 TEL: (323)737-7699, (323)737-4526  
 FAX: (323)733-8850  
 Toll Free: (800)669-0451  
 인터넷 쇼핑몰 : www.koramdeo.com  
 E-mail : cbc0191@hotmail.com  
**영업시간 9:30AM ~ 7:00P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AYCE GOGI**  
**KOREAN BBQ**  
 <구 덕수장>  
 7128 Van Nuys Blvd  
 Van Nuys, CA 91405  
 818-465-3050

■ 예배국(벨리채플)

##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하는 도우미"

예배시작 30분전, 아직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국 사역국장인 김황희 장로와 팀장인 채인배 권사 그리고 14명의 국원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예배를 돕고자 기도하고 무장한다. 주일예배 1, 2부 그리고 금요일예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편안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배안내는 물론 좌석정돈, 필기도구 비치등 물품 정리까지 마치고 밝은 미소로 모든 성도님들을 맞이한다.

김황희 예배국장은 "예배처소로 향해 오시는 성도들을 볼 때 저분들이 내 형제 자매라는 감동이 가슴으로 다가와 예배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신다. 예배안내를 시작하기 전, 항상 모든 국원들과 예배당 문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모습에서 먼저 은혜를 받게 된다.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그리고 지금은 은퇴장로로 오랫동안 한결같이 사역하시는 김황희국장, 그리고 그 뒤를 묵묵히 돕는 채인배

권사와 모든 국원들은 교회의 얼굴답게 항상 친절하고 온화한 미소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고 있다. 이들중에는 다른 사역국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어 또 예배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귀뜸한다. 그리고 그분들의 충실한 도움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신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도록 돕는 것이 예배국의 목표이고 기쁨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한다.

지금의 최혁 담임목사님을 만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눈물이 나는 믿음생활을 하고 또 자신이 녹아진 모습으로 옛 친구를 찾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서 스스로도 놀란다고 고백한다.

2016년도 예배국 기도제목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겠다고 다짐한다.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을 묻자 "일찍 오시는 성도님들은 앞좌석부터 그리고 가운데 자리부터 앉아주시면 예배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부탁 하신다.

앞으로 2016년도에는 예배국을 통하여 벨리채플의 모든 예배가 더욱 활기차고 안정되어지며 또 더욱 부흥 발전하는 주안예교회가 될 것을 확신하고 또 기대한다.

| 김신실 기자 |

■ 새가족국(플러튼채플)

## "첫 방문자들 편안하게, 미소와 섬김"

몸은 신체의 각 부분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몸이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모든 사역국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할 때 교회는 더 힘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되는 교회, 그 곳이 주안예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륜으로 치면 우리교회는 아직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등록교인이 아니면서도 주안예교회를 궁금해 하고 방문하여 영성집회나 주일예배에서 최혁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새롭게 교인으로 등록하고 교구, 구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새가족국의 역할입니다.

금번 교회 소식지 1월호에서 최전방에서 새가족들의 교회 정착을 돕는 플러튼 새가족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새가족국의 사역은 바나바, 주보배부, 봉사, 스크린, 전산계획, 사진, 교육팀 등 새가족국 내에서 사역에 따라 세분하여 조직적으로 새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매 주일 아침 이미란 전도사, 김옥희 집사를 중심으로 모든 새가족국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후 각자 사역의 위치에서 일사분란하게 사역하는 모습은 매우 숙달되

고 능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밝은 미소로 성도들을 맞이하며 주보를 배부하고 새가족을 찾아 안내하고 등록을 도우며, 함께 식사하며 새가족 교육을 소개하고 교구/구역이 편성될 때까지 연락하며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 지난 1월 24일 예배 후 새가족국 봉사자 훈련을 새가족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이는 새해에도 열심히 새가족들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플러튼채플 새가족국 담당사역자인 이미란 전도사는 "오시는 새가족들을 잘 섬겨서 우리교회에 정착하셔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훈련하여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국원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새가족들을 잘 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라며 고마움과 기대의 마음을 전했다.

국장 김옥희 집사는 "부족한 저를 도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새가족국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새가족국원



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팀장 최진선 집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한분한분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새가족국 봉사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새가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담당 제니퍼 김 집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의 사역을 한동안 떠나 있었는데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제게 주어진 사역과 성도님들을 섬길 각오입니다."

새가족국 봉사자들의 마음은 온통 새가족, 교회 뿐입니다. 주안예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는 새가족국원들의 따뜻한 섬김에 힘입어 성령충만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예배와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안에 성경퍼즐

- (가로 문제) 1.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의 사자로 일한 사람(엡 6:21, 골 4:7)  
 3. "...그 이름은 ( )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사 9:6)  
 5. 기브아 출신의 한 베나민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부친(창 13:21, 삼상 9:1)  
 7. 어떤 물체의 입구가 열리는 곳(창 29:2)  
 8. 홍수를 피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창 5-10장)  
 10. "( )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마 1:11)  
 12. 짐승을 잡으려고 파 놓은 구멍(출 10:7, 잠 22:14)  
 13. 비와 우리의 신으로서 가나안 우상의 이름(삼 2:11)  
 15. 얼굴에 웃음을 띠는 것  
 16. 관청이나 일터의 인부를 거느린 사람(출 5:6, 신 1:15)  
 17. 뱀이라고 불리운 곳의 원래 이름(창 28:19)  
 18. 군대를 편성한 행렬(출 13:18, 삼상 17:23)  
 20. 그리스도인에 대한 지도급 박해자였으나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활동(행 13:9)  
 22. 좋은 것을 주다.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한다(고전 10:16)  
 23. 보석 및 장식품들(사 3:18-23)  
 25. 여수선하고 떠들썩함(삼상 28:15)  
 27.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애용(마 10:23)  
 28. 지혜와 교훈이 담겨있는 비유적인 말 (삼상 24:13)  
 30. 에베소에는 시의회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최고관리가 있었다(행 19:35)  
 31. 므디사부근의 산 측면에 있던 울퉁불퉁한 바위(삼상 1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	
30					31		

- 에 안급 (고전 8:13)  
 3. 세간, 그릇, 연장 따위를 이르는 말(대하 4:19)  
 4. 진자주색 혹은 붉은 포도 주색을 띠고 있는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벽의 기초가 된 12번째 보석(출 28:19)  
 6. 구스의 아들 중 하나(창 10:7)  
 7.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시조이며 모세의 형(출 6:20)  
 9. 신약성경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줌(롬 8:15, 갈 4:6)  
 11. 브울의 아들이며 에돔왕, 베나민의 큰 아들(창 46:21)  
 12. 꽃이 피기 시작한 것처럼 웃음을 머금다(욥 29:24)  
 14.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아버지(마 10:3, 막 3:18)  
 15. 야곱이 자신과 라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인 돌무더기, 또는 돌기둥에 붙인 이름(수 11:3)  
 18. 전쟁 등에서 자신이 진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굴복하다(삼하 8:1, 대상 18:1)  
 19.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21. 분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하다(잠 22:24)  
 22. 일정한 양이나 수에서 부족이 생겨서(민 31:49)  
 23. 사람의 만아들(창 49:3)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4)  
 26. 사사 기드온의 아버지(삿 6:11)  
 27. 도장으로 사용되던 반지(창 41:42, 렘 22:24)  
 29. 빛진 사람이 빛을 감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 대신 맡겨 놓는 물건이나 재산(창 43:9, 잠 6:1)  
 <출처: <http://blog.daum.net/limb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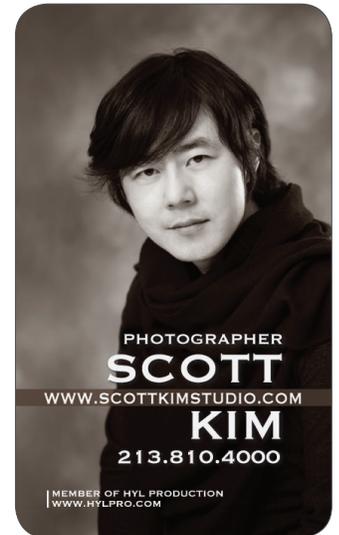
■ 정답을 오려서 이름을 적어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 분께 제출해주세요. 다 맞추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 (세로 문제) 1. 사도바울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회당에서 전파하기를 그만두고 이곳에서 강론했었다(행 9:9)  
 2. 주로 희생제물에서 사용되었으며 우상의 제물 먹는 일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교/우/비/즈/니/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 밸리채플 /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LA예배처소 / 1부 오전 9:30, 2부 11:30  
 플러튼채플 / 1부 오전 9:30, 2부 11:30

영성 집회

- 수요코람데오예배 / 저녁 7:15 LA예배처소  
 목요일영성집회 / 저녁 7:45 플러튼채플  
 금요일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LA예배처소 /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예배처소 LA Worship Center 1515 S. Santa Fe Ave. Los Angeles, CA 90021  
 플러튼채플 Cerritos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담임목사 설교방송 안내  
 크리스천 헤럴드TV(CH 18.88) 본방송: 매주(화) 7:00pm~7:45pm  
 재방송: 매주(토) 9:30am~10:15am

CTS 기독교TV방송(directv 2092) 본방송: 매주(월) 7:45pm~8:30pm  
 재방송: 매주(토) 1:00pm~1:45pm

우리방송(AM 1230) 매주 (목) 5:00~5:30am, 10:00~10:30pm

라디오서울(AM 1650) 매주 목 11:00~11:30pm